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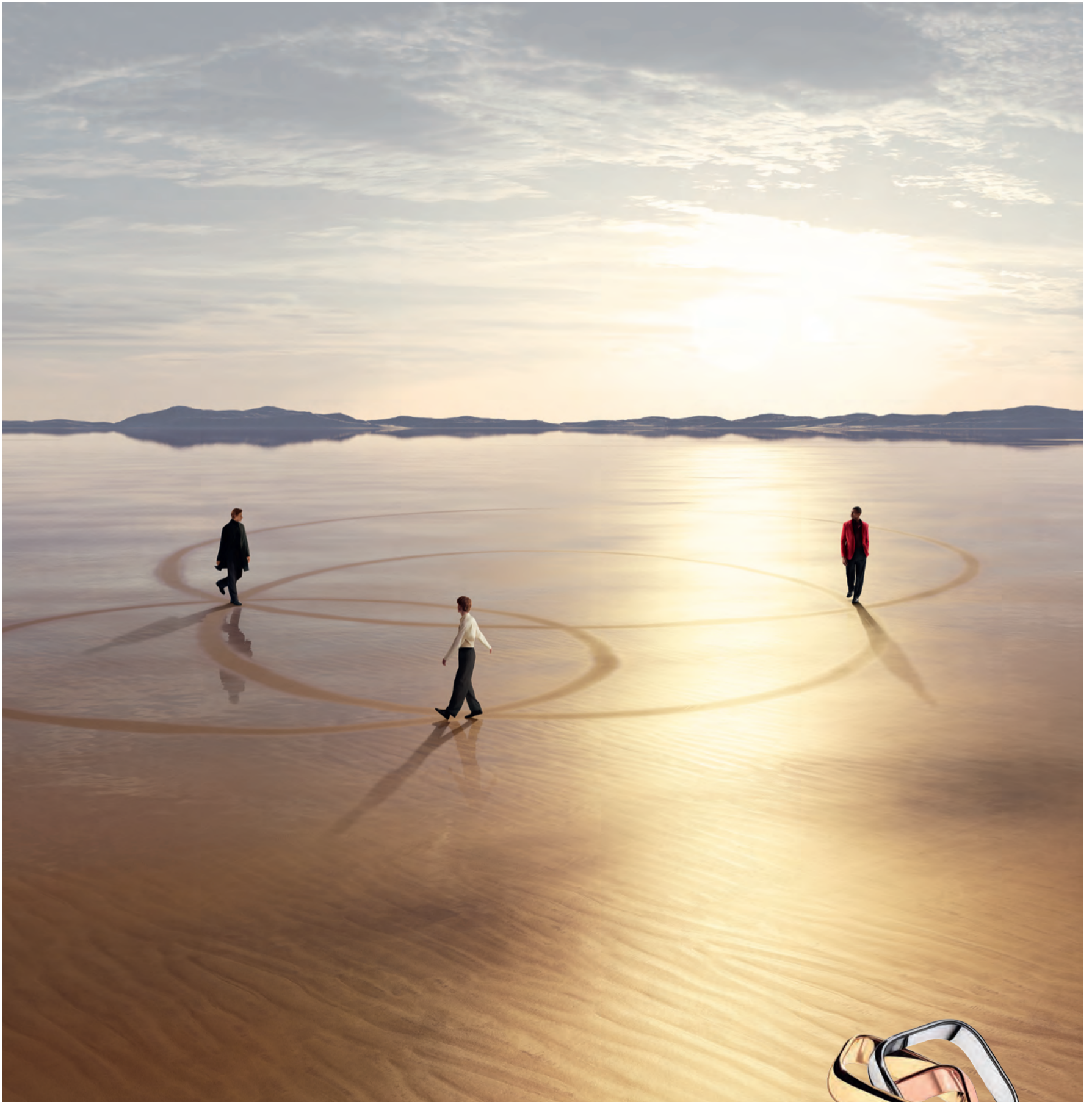
10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October 2024
vol. 275

Men's Style



TRINITY
Cartier

SEEK THE ORANGE
ENCOUNTER THE FAU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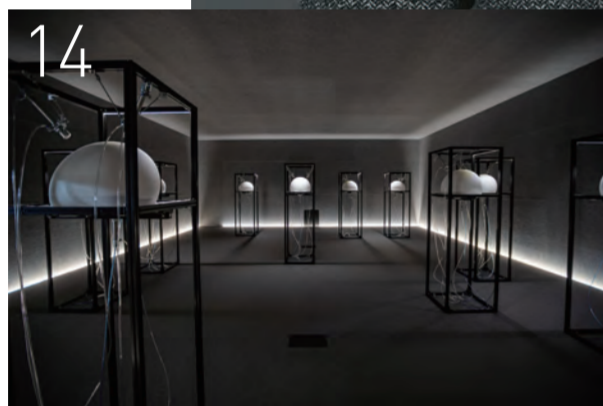
DIOR

LA D MY DIOR
YELLOW GOLD WITH "CANNAGE" PATTERN AND DIAMONDS



Contents

- 10_SELECTION** 스타일리시한 가을 남자의 F/W 에센셜 아이템.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지금, 동시대의 소리 풍경에 오감을 맡겨야 할 이유** 올해로 개최 30주년을 맞이해 문화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주 전시관과 앙림동 여덟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30개국에 걸친 72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전부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작가들이며, 덕분에 신작이 눈에 많이 띈다.
- 17_TOKYO IS CALLING AGAIN** 수그러들지 않는 더위를 감안하면 이제는 '늦여름'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9월 초에 프리즈 서울이 있다면, 도쿄의 가을에는 또 다른 현대미술 축제가 열린다. 도쿄의 아트 신(scene)을 요리조리 감상할 수 있는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행사 날짜는 11월 둘째 주(11.7~10)지만 이를 전후로 펼쳐지는 콘텐츠의 파노라마를 눈여겨볼 만하다.
- 18_SPECIAL WELCOME!** 빛, 투명성, 개방감.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우르면서 한국적 미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공간, 까르띠에 메종 청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아하고 아늑한 환대를 건넨다.
- 22_GET THE LIST** 새로운 디자인, 소재와 컬러로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뉴 백 셀렉션.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까르띠에의 트리나티. 올해 까르띠에에는 이를 기념해 새로운 디자인의 트리나티 링을 선보였다.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소재의 3개 링이 조화롭게 결합된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변함없이 유지했다. 까르띠에 트리나티는 이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든 형태의 사랑과 영원함을 상징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대변한다. 문의 1566-7277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성장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민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별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 24_PERFECT PLEASURES** 재킷에서 근사한 만년필을 꺼내 메모하는 신사의 품격.
- 25_POETRY OF TIME** 반클리프 아펠만의 독보적인 예술적 기교(métiers d'art)로 매혹의 시간을 완성하다.
- 26_THE GLORY OF WOMAN** 단순히 기존 남성 시계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대 여성의 소망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불량판의 레이디 버드 컬렉션. 그리고 오늘날,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에 따라 더욱 발전한 장인의 노하우를 담아 새로운 타임피스를 추가했다.
- 28_RUN TO YOU** 남자를 위한 F/W 스타일의 재해석. 은은하지만 파워풀하게, 콕이트 럭셔리 룩의 시간.
- 36_ADVENTURE READY** 기능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한 남성 아웃도어 룩 아이템 제안.
- 37_ORIGINALS FOR LIFE** 여행의 동반자 같은 럭셔리 모빌리티 브랜드 리모와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스타일리시한 뉴 백 컬렉션, '오리지널 백'을 선보인다.
- 38_EVER EVOLVING BEAUTY** 1백50여 년간 쌓은 피부 과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와 함께한 아름다운 여정.
- 40_GROOMING RITUAL** 말끔한 하루, 맨즈 코즈메틱 아이템.
- 41_INTO THE SCENT**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 남자의 향기.
- 42_EDITOR'S PICK** 바쁜 일상에서도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지키고 싶다면, 이달의 뷰티템을 만나보자.



RIMOWA



THE ORIGINAL BAG





완결기에 포근한 온기를 유지해줄 엠보스트 adc 카디건 가격 미정 아미.



18K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브라운 PVD의 조화가 돋보이며, 총 0.7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퍼트로 클래식 스몰 펜던트 2천만원대 부쉐론.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와 카프 레더로 완성한 트리플 스티치 몬테 스니커즈 1백82만원 제냐.



클래식한 모노그램 디스토프 코팅 캔버스와 에이전트 카우아이드 가죽 소재의 스퀘어 50.3x17x30cm, 1천50만원 루이 비통.



고급스러운 모드를 보여주는 실드 소재의 피아스카프 가격 미정 로피애나.

Selection

스타일리시한 가을 남자의 F/W 에센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18K 베이지 골드로 이루어진 쥘링 모티브의 코코 크러쉬 라지 링 6백만원대 샤넬 확인 주얼리.



33mm 18K 킹골드 케이스를 갖춘 클래식 퓨전 킹골드 그린 2천만원대 워블로.



유니크한 패턴을 자랑하는 실크 소재의 셔츠 2백만원대, 단정한 멋을 부여하는 코트 소재의 매긴트시 코트 가격 미정 모두 펜디.



간략적인 라인 컬러 패키징을 선보인 2024년 한정판 울라피테루스 by 에실로룩소티카.

단단한 감성을 보강하는 레피스트리프티 벨트 1백만원대 벨루티.



클래식한 핏의 투턱 플리츠 와이드 레그 팬츠 가격 미정 폴 스미스.



사피아노 프린트 폴 그레이인 보버인 레더로 제작한 사토리얼 트리오 6cc 지갑 73만원 몽블랑.



캐주얼한 느낌을 배가하는 가죽 브로그 슈즈 가격 미정 미우미우.



다이아몬드를 매개체로 세팅한 핑크 골드 버블과 그린 핑스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한정판 브레이슬릿 1백50만원 로피애나.



가벼운 소재를 휴대하기 좋은 알루미늄 크로스 보디 백 2백21만원 리모와.

아미 02-6956-8782 부쉐론 02-6905-3322 제냐 02-3479-6297 루이 비통 02-3432-1854 로로피애나 02-546-0615 워블로 02-540-1356 샤넬 확인 주얼리 080-805-9628 펜디 02-544-1925 에실로룩소티카 02-501-4436 벨루티 02-536-1895 몽블랑 1877-5408 폴 스미스 1644-4490 리모와 02-546-3920 미우미우 02-541-7443 프리드 02-514-3721

스타일리스트 임배영



DUAL REPAIR LIFT CREAM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Dual Repair Lift Cream
Crème Double Lift Réparatrice

리프팅 특수 케어 2X 시너지

리프팅 2주 전	리프팅 24시간 후	리프팅 4주 후
+42% ¹ 피부 밀도	+202% ² 손상 ² 회복	+213% ³ 피부 탄력

ap-beauty.com



AUTUMN AURA

로로피아나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뛰어난 기능성과 활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최고급 소재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주로 세일링, 승마, 클래식 카, 스키 같은 스포츠와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을 향한 메종의 열정에서 영감을 받은 룩을 선보인다. 특히 홀시® 재킷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한 이탈리아 승마 팀의 아우터웨어로, 로로피아나의 첫 아이코닉 아이템이다. 사슴 가죽 칼라와 2개의 포켓, 노치드 지퍼 플랩이 특징인 이 재킷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활동성과 유연성을 갖추어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2-546-0615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멋진 친구, 위스키

김어진 가을밤, 풍미와 낭만을 더해줄 위스키 리스트. 글렌모렌지 오리지널 10년 달달한 바닐라와 복숭아의 향이 어우러지다. 오렌지와 꽃 향이 피지며 부드러운 피니시를 이룬다. 70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아드벡 10년 멘틀과 스모키한 과일 향을 시작으로 레몬과 라임 향이 이어지며 크리미한 카무치노와 씹새래한 다크 초콜릿 진향이 일인애 오랫동안 남는다. 700ml 10만원대. 문의 02-2188-5100 하우스 오브 산토리 히비키 히모니 장미와 라지, 로즈메리, 샌드우드 등 더해 풍부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 골라 절인 오렌지,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맛이 조화를 이루어 풍미를 극대화한다. 700ml 23만원대. 문의 02-3453-7397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Highly Refined

2018년 처음으로 등장한 뒤 레트로 컨템퍼러리 스타일의 정수로 자리를 지켜온 바세론 콘스탄틴의 피프티시식(Fiftysix) 셀프 와인딩 워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된다. 1950년대의 미학과 바세론 콘스탄틴이 1956년에 제작한 레퍼런스 6073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40mm 핑크 골드 케이스가 블랙 다이얼과 다크 그레이 컬러의 누백 카프 스킨 레드 스트랩과 만나 클래식한 무드를 배가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코트 드 제네바 마감 기법으로 완성한 칼리버 1326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핑크 골드 로터는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이 2백70여 년간 이어온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상징과도 같은 말테 크로스를 발견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Dear My Lady

디올의 아이코닉한 까나쥬 패턴이 아름다운 주얼리로 탄생한 마이 디올 컬렉션. 이 그래픽적 패턴은 1947년 몽테뉴가 30번지에서 개최한 첫 번째 패션쇼의 게스트를 초대할 오토 쿠티르 살롱의 나폴레옹 3세 스타일 의자를 장식하기도 했다. 디올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어린 시절 방문했던 디올 부티크와 그곳에서 만난 까나쥬 모티프에서 받은 영감을 이 아름답고 우아한 주얼리에 반영했다. 여러 가닥의 골드 스퀘드가 조화를 이루며 정교하게 짜인 섬세한 메시 형태가 특징인 이 텍스처는 아틀리에의 정밀하고 고요한 기술로 완성했다. 옐로·로즈·화이트 골드 단색 또는 투톤 버전으로 선보이며, 때로는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을 더해 풍성한 매력을 자아낸다. 문의 02-3280-0104



Lord of the Rings

취향 있는 남자를 위한 포인트 링 4. (위부터) 까르띠에 트리니티 쿼츠 웨딩 링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쿼츠형 디자인으로 화이트·핑크·옐로 골드 등 기하학적인 세 가지 링이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사벨 와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라지 링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했으며 하우스의 시그니처인 헬링 디자인에 볼륨감 있는 세이프로 남성적인 매력을 배가한다. 6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chanel.com 부세론 콰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라지 링 옐로·화이트·핑크 골드로 브라운 PVD 소재로 완성한 네 가지 밴드로 이루어졌으며 총 0.51캐럿의 25개 라운드 다이아몬드 링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다이아니 벨 에프크 밀 링 화려하는 핑클 모티브로 삼아 브랜드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핑크 골드 소재에 가운데 원형과 스퀘어가 교차되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The Next Travel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로망이자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 리모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수트케이스를 꼽자면 오리지널 캐빈 실버라 하겠다. 1950년 첫선을 보인 그루브 디테일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시크하면서도 감각적인 무드로 사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최고급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의 소재감을 강조한 실버 컬러는 견고함은 물론 가장 아이코닉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허 받은 멀티힐 시스템, 완벽한 컬러 매치의 텔레스코픽 핸들, 리모와 로고를 각인한 양극산화 알루미늄 배지 등 제품의 모든 디테일에서 리모와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리모와의 독보적인 독일 엔지니어링과 상징적인 디자인 감성으로 완성한 오리지널 컬렉션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rimowa.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Be My Bag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가방, 네버풀 인사이드 아웃(Neverfull Inside Out) 리버서블 버전이 출시됐다. 우선 네버풀 인사이드 아웃 MM은 가방을 뒤집어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를 통해 숨겨졌던 내부 주머니에 새긴 메종의 시그니처 스탬프 같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인 네버풀 인사이드 아웃 BB는 내부의 지퍼 파우치가 시그니처 외부 디테일로 자리 잡아 감각적인 느낌을 준다. 콤팩트하고 세련된 이 가방은 검정, 다크 핑크(카키), 로즈 폰다체리 등 여러 색상의 가죽으로 출시되었으며, 새로운 모노그램 탈착 스트랩이 있어 어깨에 매거나 크로스 보디로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복잡하고 매력적인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메종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2020년 론칭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크 블루 컬러 액센트를 더한 전작과 달리 이번 제품은 은은한 그레이 색조와 블랙을 조화롭게 조합해 완성했다. 여기에 유광 연마 처리한 핑크 골드 핸들을 매치해 가독성을 높이고 골드의 은은한 광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케이스 지름 41mm로 제공하며 오데마 피게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공정을 거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플라잉 투르비용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함께 갖춘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워치는 칼리버 2952로 작동하며 지난 8월 공식 오픈한 한국 최초의 플래그십에서 곧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3-2999



INTO THE AUTUMN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선보인 2024 F/W 남성 로퍼 3. (위부터 차례로) 브라운 컬러 풀 그레이н 가죽 소재에 오버사이즈 스타칭, 레이스 여밈이 돋보이는 펜디 테크 레이스업 1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알프 로렌의 특수 제작 기법으로 뛰어난 신축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웰링턴 페린 카프 스니 로퍼 1백10만원대 힐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앞면의 태슬 장식이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프 스니 레드 소재의 로퍼 1백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김보민

남부럽지 않은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성비'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이탈리아 와인인 매력적인 와인을 좋아한다면 좀처럼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비바 일 비노 2024(Viva il Vino 2024)'는 그러한 와인 애호가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행사다. 9월 13일 시작해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 와인 캠페인은 이탈리아 무역공사가 외교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함께 펼치는 행사로 지난여름 첫 회가 호응을 얻어 이번엔 두 번째 프로모션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의 레스토랑과 와인 바 등 2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부산까지 영역을 넓혔다. 한식, 컨템퍼러리,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와인 바, 와인 숍 등 총 38개 업체가 합류했고, 이탈리아 와인 수입사 역시 28곳에 달한다. '비바 일 비노 2024'가 내세우는 특징점 또한 돋보인다. 열띤 경쟁이 이뤄진 와인 매칭 시합을 거쳐 1백종의 와인이 최종 낙점되었고, 여기에 기존에 보유한 와인까지 포함하면 이번 행사에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와인은 무려 6백5종에 이른다고 한다. '비바 일 비노 2024' 참여 업체는 저마다 다른 메뉴 구성과 와인 페어링, 할인 행사 등을 꾸리며, 관련 정보는 e-키탈로그(<https://works.do/GIF5JIB>)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이탈리아 무역공사 02-779-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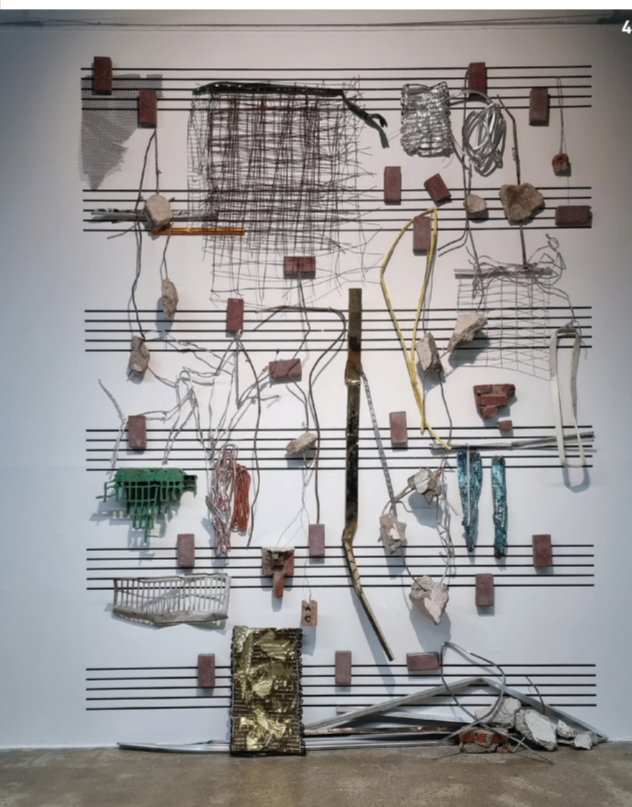
VIVA IL VINO 2024



광주비엔날레 개최 30주년 전시

지금, 동시대의 소리 풍경에

오감을 맡겨야 할 이유



올해로 개최 30주년을 맞이해 문화 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제15회 광주비엔날레(2024. 9. 7-12. 1)의 지휘봉을 잡은 것은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예술감독이다. 이 전시는 한국어 제목 〈관소리, 모두의 울림〉과 영어 제목 〈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라는 다른 뉘앙스를 지닌 두 제목 아래,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과 앙림동 여덟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30개국에 걸친 72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전부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작가들이며, 덕분에 신작이 눈에 많이 띈다.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22개국 기관, 9개의 도시와 기관이 참여하는 31개의 파빌리온 전시가 각 나라의 특성을 발휘하며 광주 곳곳에서 울림을 주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의미 있게 공명하는 소리 풍경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광주비엔날레는 인간 중심이고 시각 우선인 미술계의 영역을 극복하고, 형식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며, 감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공간: 몽유도원도에서 서편계로

화려한 색깔과 패턴이 인상적인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공식 포스터는 미술사에서 최초로 꿈의 공간을 재현한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산세와 관점을 참고했다고 한다. 첫눈에는 자연풍경을 담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충류부터 포유류까지, 도시와 바다, 그리고 상상의 공간까지 담은 '시각 사운드스케이프'가 펼쳐진다. '몽유도원도'의 산세가 출렁거리더니 어느새 파동이 되어 갖가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사운드스케이프다. 한국적인 사운드스케이프 중 하나가 '관소리'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리서치를 하다가 한국의 사운드스케이프인 '관소리'를 만났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등을 접하면서 '감'을 잡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아들과 그런 아들에게 늘 절실한 대상인 공간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했다는 이번 전시는 '광주의 광주화와' 18-19세기의 관소리'보다 '광주의 세계화와' 21세기의 사운드스케이프'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관소리의 흔적을 기대했다면 처음엔 조금 당황할 수도 있다. 관소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한 21세기적 소리 풍경은 형식(form)을 극복(ex-)하는 것을 뜻하는 '엑스폼(exform)'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부리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에서 'sound(소리)'는 우리가 듣는 모든 음향을 포괄한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에만 국한되는 협의적 의미의 '언어'보다 포괄적이다. 'landscape(풍경)'에서 비롯된 '스케이프'는 물리적 환경이나 주변 경관을 의미한다. 음향 생태학자 머리 R. 셰이퍼(Murray R. Schafer)는 '소리로 이뤄진 풍경인 사운드스케이프는 특정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하나의 환경적 요소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음향 생태학(acoustic ecology)의 기반이 된다. 이를 토대로 광주비엔날레는 인간 중심이고 시각 우선인 미술계의 영역을 극복하고, 형식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며, 감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1, 2관 부딪침 소리 |

FEEDBACK EFFECT

사실 부리오 감독의 의도를 명쾌하게 따라잡기까지 살짝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 9월 6일 열린 프리뷰 당일, 국내의 기자와 여러 관계자들로 광주비엔날레 주 전

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장으로 들어갔는데, 터널 같은 입구가 조명이 없이 어두웠지만, 길을 잃을 정도는 아니어서 바로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소리를 놓쳤다. 시간에 쫓기고 인파에 밀리다 보니 어느새 출구에서 서 있었고, “관소리가 어디에 있었지?”라고 자문하게 됐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관람을 다시 시작했다. 전시의 첫 번째 작품인 터널에 발을 디디자 갑자기 많은 소리가 들려왔다. 길거리 상인의 목소리, 버스 운전사의 소리, 지나가는 차량 소리,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울렸다. 처음 이 작품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쳤을 때는 길을 잃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리자 낯선 언어와 음향 가운데 헤매게 되었다. 바로 에메카 오그보(Emeka Ogboh)의 'Oju 20' 작업이다(Oju는 나이지리아에서 사용하는 요류버어로 '눈' 또는 '얼굴'을 의미하며, 이 작품에서는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됐다). 나이지리아의 도시, 라고스의 오주엘레그바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녹음한 현장의 소리, 활기차지만 혼란스러운 에너지, 그리고 전자음악이 결합되어 21세기 라고스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이룬다. 1, 2관의 주제인 '부딪침 소리' 혹은 '피드백 효과'는 '두 음향 기기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때 좁은 공간에서 소리가 포화되면서 발생한다.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말하는 음향 기기로서 필자와 다른 말하는 음향 기기의 잡담과 소음으로 작품을 놓친 것 역시 '피드백 효과'인 셈이다. 전시장뿐 아니라 일상에서, 특히 생태계에서 수많은 소리가 피드백 효과에 의해 부딪치고 사라지며, 중첩되고 포화된다.

1 주 전시장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만 구성했다. 사진은 노엘 W. 앤더슨(Noel W. Anderson)의 '흑인 여가를 위한 변론'과 회화 작품 설치 모습. Photo by 고성연 2 아몰 K 파틸(Amol K Patil)의 '그 도시에 초대받은 이 누구인가?', 2024, 청동 조각, 소리와 빛 디스플레이, 기법 설치. Courtesy the artist. Commissioned by the 15th Gwangju Biennale. 3 해리스 피어스(Harrison Pearce)의 '원자기', 2024, 모듈형 키네틱 조각 및 사운드 설치, 기법 설치, 10분. Courtesy the artist. Commissioned by the 15th Gwangju Biennale. 4 다양한 폐기물이 마치 음표처럼 벽면에 붙어 있는 프랭크 스키티(Franck Scurti)의 설치 작품 '광주 기록(2024)', '검침 소리를 내세운 3관에 있다. Photo by 심은록 5 피터 부겐호우트(Peter Buggenhout),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91', 2018-2023, 집먼저로 달린 혼합 매체, 270×389×295cm. Courtesy the artist and Buggenhout studio. * 2, 3, 5 이미지, 광주비엔날레 제공

3관 검침 소리 | POLYPHONY

전시 전체에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지만 '검침 소리'라는 주제를 내세운 3관에서는 촉각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인간을 넘어 동물, 기계, 쓰레기, 폐기물 등에서 비롯된 소리의 겹침(polyphony)이 인상적으로 전개된다. 프랭크 스키티(Franck Scurti)는 광주 곳곳의 쓰레기통에서 채집한 곰팡이를 뒤집어쓴 석고 버섯을 고전 영웅이나 신들의 대리석 조각처럼 좌대에 올려 비인간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이 좌대 역시 광주 쓰레기 매립장의 폐기물을 압축해 만들었다. 벽면에는 거대한 오선지가 그려져 있고, 다양한 폐기물이 음표인 양 붙어 있다. 그 앞에 선 '인간'은 '비인간'의 연주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확장된 의미의 '쓰레기'는 니콜라 부리오식 해석을 빌리자면(엑스폼-미술, 이데올로기, 쓰레기) '일상에서 존재(being)를 소유(having)로 대체하도록 강요받는 모든 사람(불법체류자, 노숙자 등)과 사물을 지속적으로 현실적이며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메타포다.



4, 5관 처음 소리 | PRIMORDIAL SOUND

전시가 진행될수록 '비인간'적 세계가 확장된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까지 청각화, 시각화되고 사운드스케이프의 영역도 점점 더 확장된다. 이는 미래의 '음향 생태학'의 문제로 연결된다. 전시장에는 뜬금없이 하얀 소금 사막이 펼쳐지고, 끝이 없는 듯 아득한 구멍이 검은 액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식물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 비앙카 봉디(Bianca Bondi)의 '길고 어두운 헤엄(The Long Dark Swim)'(2024)이라는 작업이다. 인간과 비인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위계가 거부되며 거시적, 미시적 관계를 통해 생태학적, 전체론적 사고를 제안한다. 21세기 인간들이 살고 있으며 인식해야 할 '실재의 사막(메트릭스), 위소스키 감독, 2003)이자 '우리 시대의 공허(니콜라 부리오)다. 혹은 전시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길을 헤맸다면 전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장-뤽 고다르의 영화 <중국 여인(La Chinoise)>에 나오는 표현처럼 '자북(magnetic north)'이 제거되어 나침반의 방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리오 감독은 주어진 시공간적 조건 아래 그의 음색이 잘 드러나도록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지휘했다. 쉽고 강력하며 충격적인 전시에 익숙해져 사투 유희하듯 관람했던 필자를 스스로 꾸짖으며, 다시 한번 전시장을 순례하듯 관람했다. 전자와 같이 쉽게 이해되고 바로 감각에 전달되는 전시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눈을 감고 감정을 자제하며 봐야 하는 전시는 관람객을 성숙시킨다.



1 Dominique Knowles, '모든 계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속하고 품위 있는 정례식', 2024, 424x3,000cm. Courtesy the artist. Commissioned by the 15th Gwangju Biennale. 2 Bianca Bondi, '길고 어두운 헤엄', 2024. Commissioned by the 15th Gwangju Biennale. 3 Julian Abraham, '또가(Togar)', 그것은 스틸이 아니다', 2024, 비디오, 61분 56초. 4 양평동에 있는 한부칠 갤러리 공간 입구. 광주비엔날레 전시 참여 작가 Angela Bulloch 작품인 '다이내믹 스테레오 트로잉 마산'(2020) 시리즈(2024)가 전시되고 있다. Photo by 고성연 5 Nirveda Alleck, '가면무도회 I, II, III', 2019. 6 Liesl Raff, '리메종', 2023. 7 Akiko Utsumi, '지금 여기서 울리는 소리는 언제 어디서인가 울려 퍼질 것이다', 2024, 강철, 황동. Photo_Shunta Inaguchi * 4, 5 Photo by 고성연

53개의 목

21세기의 사운드스케이프가 18-19세기의 판소리도 불러왔다(비엔날레 전시장에서도 판소리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활용한 작품이 더러 눈에 띈다). 화가는 자신의 준법(峻法)을 찾아야 하고, 소리꾼은 '득음(得音)을 해야 한다(최동현, <소리꾼 : 득음에 바치는 일생>). 판소리는 서구와 확연하게 다른,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점 낯설어지고 있는 사운드스케이프다. 서구에서는 가수의 성대를 최대한 보호한다면, 반대로 소리꾼의 성대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한다. 소리는 '양성-천구성-수리성-떡묵'으로 나뉘는데, 충분히 삭은 소리가 나와야 하나, '양성'같이 너무 맑거나 '떡묵'같이 너무 거칠면 가치가 없어 그 중간이 좋다고 한다. 이 또한 시대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 명장 진봉규는 이러한 소리를 내는 53개의 성음과 목의 종류를 이야기한다.

아귀성 푸는목, 깊은목, 짙은목, 맵은목, 맵는목, 미는목, 방울목, 굵은목, 얇은목, 단는목, 짙은목, 짙은목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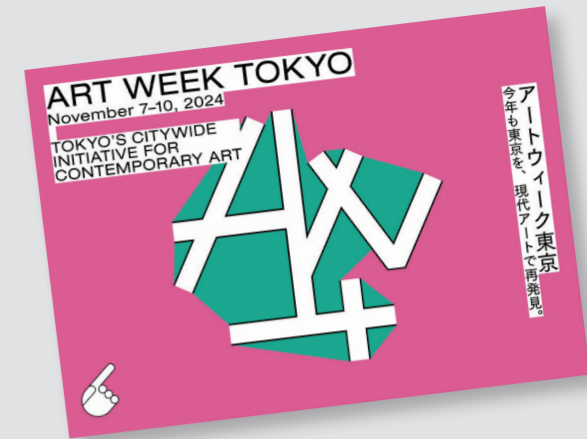
상기 리스트에서 우리는 몇 개의 목을 보존하고 있는지 자문하며, 광주비엔날레의 영어 제목대로 '판소리'가 21세기의 사운드스케이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가 든다. 그만큼 여러 이유로 '판소리'의 전승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엔날레라는 미술 행사를 넘어 지구와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어 시급하고 위급한 '음향 생태학'의 문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사람의 청각으로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까지 청각화, 시각화하며 확장된 미래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제시하고 생태학적 사유를 촉구한다.

글 심은목 (시 영화감독, 미술비평가) Edited by 고성연



아트 위크 도쿄(AWT) 2024_프리뷰

Tokyo is Calling Again



프로그램 하나하나 공들여 짠 글로벌 행사가 어니트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도무지 수그러들지 않는 더위를 감안하면 이제는 '늦여름'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9월 초에 프리즈 서울이 있다면, 완연한 도쿄의 가을에는 또 다른 현대미술 축제가 열린다. 도쿄의 아트 신(scene)을 요리조리 감상할 수 있는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소프트 론칭'으로 시동을 건 이래 4년 차에 접어들니, 이제 주위에서는 가을에 일본행을 계획하며 'AWT'를 기억해두는 이들이 제법 눈에 띈다. 행사 날짜는 11월 둘째 주(11. 7~10)지만 이를 전후로 길게 펼쳐지는 콘텐츠의 파노라마를 눈여겨볼 만하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미술 애호가들의 캘린더는 팬데믹의 빗장이 풀린 이래 다시금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아직도 또 볼 게 있나? 아니, 감상할 여력이 있던 말인가? 주변에서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분명 문화 예술에는 중독성 짙은 마력이 있다. 풍부하다 못해 버거울 정도의 콘텐츠 홍수에 시달려 당분간은 '발품을 도저히 못 팔겠노라고 선언했던 이들이 다시금 하늘길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걸 보면 말이다. 멀리 가지 않고 아시아만 놓고 봐도, 전국을 들쭉했던 카이프×프리즈 서울 주간 이후에 도쿄, 상하이, 방콕 등에서 각종 현대미술 축제가 거듭 바통을 주고받는다. 11월 둘째 주(11. 7~10)에는 도쿄의 가을을 수놓는 상징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많이진 53개 기관·조직(40개 갤러리 포함)이 참여하는 예술의 장이다.

1 Yuko Mohri, 'Sketch for Piano Solo: Belle-Île', 2024. Courtesy the artist and Artizon Museum. 2 Tabaimo, 'aitaisei-josei', 2015, Video installation. © Tabaimo, Courtesy Gallery Koyanagi. 3 Louise Bourgeois, 'Topiary IV', 1999. Photo_Christopher Burke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4 Louise Bourgeois, 'Spider', 1997. Photo_Maximilian Geuter © The Easton Foundation/Licensed by JASPAR, Tokyo, and 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5 Ryoko Aoki, 'A game in which you divide your attention between six balls', 2022. Mixed-media installation, two parts. Painting: watercolor on paper, 38x56cm; object: stones in wood frame, 26.5x26.5x3cm. © Ryoko Aoki, Courtesy Take Ninagawa. 6 Leiko Ikemura, 'Stehende I, II', 1991. Ceramic, two parts, 119x26.5x20cm and 114.5x30x18cm, respectively. Courtesy the artist and ShugoArts. 7 양혜규, '지네 해조류 넝쿨기 - 황홀망恍惚網 #258', 2024, Hanji, washi, origami paper on alu-dibond, framed 62x6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_양혜규 스튜디오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 5-7은 세일즈 플랫폼인 AWT Focus에서 올해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상했듯 지난해 처음으로 '부티크 페어'라 여겨질 'AWT 포커스'를 선보였고, 올해도 렉서리 호텔인 더 오쿠라 도쿄 부지 내에 있는 오쿠라 뮤지엄에서 그 기초를 이어간다. 세일즈 플랫폼이지만 '미술관급' 수준을 강조하는 만큼 저명한 큐레이터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가 이끄는 올해의 AWT 포커스는 더욱 다국적인 구성이 엿보인다. 양혜규 작가의 작품을 내놓는 국제갤러리(서울)를 비롯해 실버렌즈(마닐라/뉴욕), TKG+(타이베이) 등 각 나라의 대표적인 갤러리들이 참가한다(작가/그룹 수는 57개). 전시 제목은 <Earth, Wind, and Fire!> 물론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축제의 장은 갤러리와 미술관,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렉서리 메카'인 도쿄답게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AWT 본행사다. 지난해 프라다 아오야마 매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일본 팝 아티스트 다니야미 게이이치(Keichi Tanaami) 회고전이 국립신미술관에서 열리고, 긴지의 아티즌 뮤지엄에서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모리 유코(Yuko Mohri) 개인전이 열린다. 또 다른 주요 현대미술관인 MOT에서는 일본의 선구적인 미술품 수집가 다카하시 류타로(Ryutarō Takahashi)

소장품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블록버스터'를 꼽으려면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기획전이다(모리 아트 뮤지엄). 9월 25일 개막한 이 전시는 일본에서 2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형 전시로 70년 여정을 아우르는 1백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리 아트 뮤지엄과 밀접한 곳에 모리 그룹의 또 다른 야심작이자 일본 최고층 건물인 아자부다이 힐스가 명소로 떠올랐는데, 여기에는 팀랩 보더리스 전시장이 이전하고 페이스갤러리가 들어서 있기도 하다. 도쿄를 찾는 글로벌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풍경이다. 글 고성연





©Cartier

Special Welcome!

빛, 투명성, 개방감.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우르면서 한국적 미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공간, 까르띠에 메종 청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아하고 아늑한 환대를 건넨다.

- 1 한옥의 문과 창호에서 얻은 모티브와 지붕부에 적용되었던 궁중 건축양식이 돋보이는 한국적 미학을 표현한 까르띠에 메종 청담 파사드.
- 2 2층에 자리한 프라이빗 룸. 3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1층의 포커스 월, 경복궁 향원정의 연못가를 유유자적하는 까르띠에의 상징 팬더가 자리하고 있다.
- 4 타일 기법으로 세공한 팬더 포커스 월도 1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모티프다. 까르띠에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산수와 팬더의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2

3

©Cartier



©Cartier

까르띠에 메종 청담은 언제나 청담동 럭셔리 리테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난 2008년 아시아 최초 까르띠에 메종으로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까르띠에 메종 청담은 2016년 레노베이션에 이어, 2022년 두 번째 레노베이션을 통해 까르띠에와 서울의 정신을 담았다. 까르띠에의 삼페인 골드 컬러에 '빛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감'을 강조하며, 건물 전체로 고스란히 들어온 자연광이 내부를 가득 채워 누구라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대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한옥 문살과 창호, 보자기 같은 한국 전통 공예에 기반한 내부 디테일로 까르띠에와 서울의 미학적 조화를 빛내 눈길을 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 층으로 이뤄진 까르띠에 메종 청담에서는 까르띠에의 상징과 정신이 한국의 전통과 미감을 아우르는 창조적 표현을 마주할 수 있다.

1층, The Culture of Design

프랑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산수, 경복궁의 연못가를 유유자적 거니는 까르띠에의 상징 팬더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주하는 1층은 프랑스 태생 메종의 시각을 통해 한국적 미학을 새롭게 증폭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산자락의 부드럽게 물결치는 선과 그레데이션으로 마치 까르띠에가 한국의 산수를 온화하게 품고 있는 듯하다. 까르띠에의 아이콘 컬렉션이 펼쳐지는 1층의 포커스 월에는 경복궁 향원정 연못가를

4



©Cartier 5



©Cartier 6

거니는 까르띠에의 상징 팬더가 자리 잡고 있다. 매화 꽃잎을 모티브로 한 문양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파티나 벽면은 아티스트가 이 파티를 하나하나 세심히 굽어내는 세심하고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크리스털 상들리에에는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과 까르띠에 주얼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라워 모티브의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 까르띠에의 첫인상이 담긴 층인 만큼, 곳곳에서 메종을 상징하는 디테일과 모티브를 섬세하게 수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층, How Far Would You Go for Love

2층은 2개의 대조적인 콘셉트인 한국의 대표 수종 소나무를 추상화한 요소와 까르띠에의 상징 팬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국적인

고도 특별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크게 연약의 공간과 남성 컬렉션 공간으로 나뉘는데, 연약의 공간에는 태양 빛을 형상화한 천장의 무늬와 이에 대비되는 바닥의 카펫, 그리고 존 폼프(John Pomp)의 기법고 서정적인 상들리에가 만나 우아함을 더한다. 또 장인이 드라이플라워를 하나하나 작업해 특별 제작한 콘솔은 셀러브레이션을 위한 이 공간에 자연적 아름다움을 배가한다. 한편 남성 컬렉션 공간에서는 소나무의 푸른색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한편, 까르띠에의 상징인 팬더가 추상적인 패턴처럼 어우러지는 포커스 월이 대조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1층이 부드러움을 강조했다면, 2층에서는 한층 더 선명하고 대조적인 소재와 색감을 통해 새로운 까르띠에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5 층 폼프의 기법고 서정적인 상들리에가 우아함을 더하는 2층 공간. 6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와 까르띠에의 영원한 상징 팬더에서 영감을 받아 창의적으로 표현한 추상적인 아트 월을 설치한 2층의 모습. 7 한국의 공예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2층의 프라이빗 룸 일부. 8 발을 드리운 듯한 한국적 소재가 돋보이는 2층 층가.

3층, Le Salon Prestige
한국적 문양과 소재에서 영감을 얻은 천장 및 벽체의 문양, 한국 산수의 아름다움을 유연한 선과 조명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인 3층에서는 가장 세련된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까르띠에 스타일과 창의적 비전을 담은 하이 주얼리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는 특별 제작한 자개 모자이크 콘솔이 자리하는데, 모자이크 하나 하나는 원석의 컬러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메종의 감각을 내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진정한 하이엔드를 보여준 것이다. 또 나무와 꽃 덩굴의 내추럴한 모티브가 흐르는 듯한 조명을 설치해 까르띠에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기도 한 자연이 하이 주얼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3층 야외 테라스로 통하는 창문은 구름이 몽개몽개 피어나고, 한편으로는 꽃이 겹쳐 있는 듯 느껴지는 에칭 글라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테라스 상부의 대형 베일을 통해 빛과 그림자의 유희가 펼쳐져 몽환적 느낌을 연출한다.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에 집중하기에 손색 없는 공간이다.



©Cartier 7



©Cartier 8



©Cartier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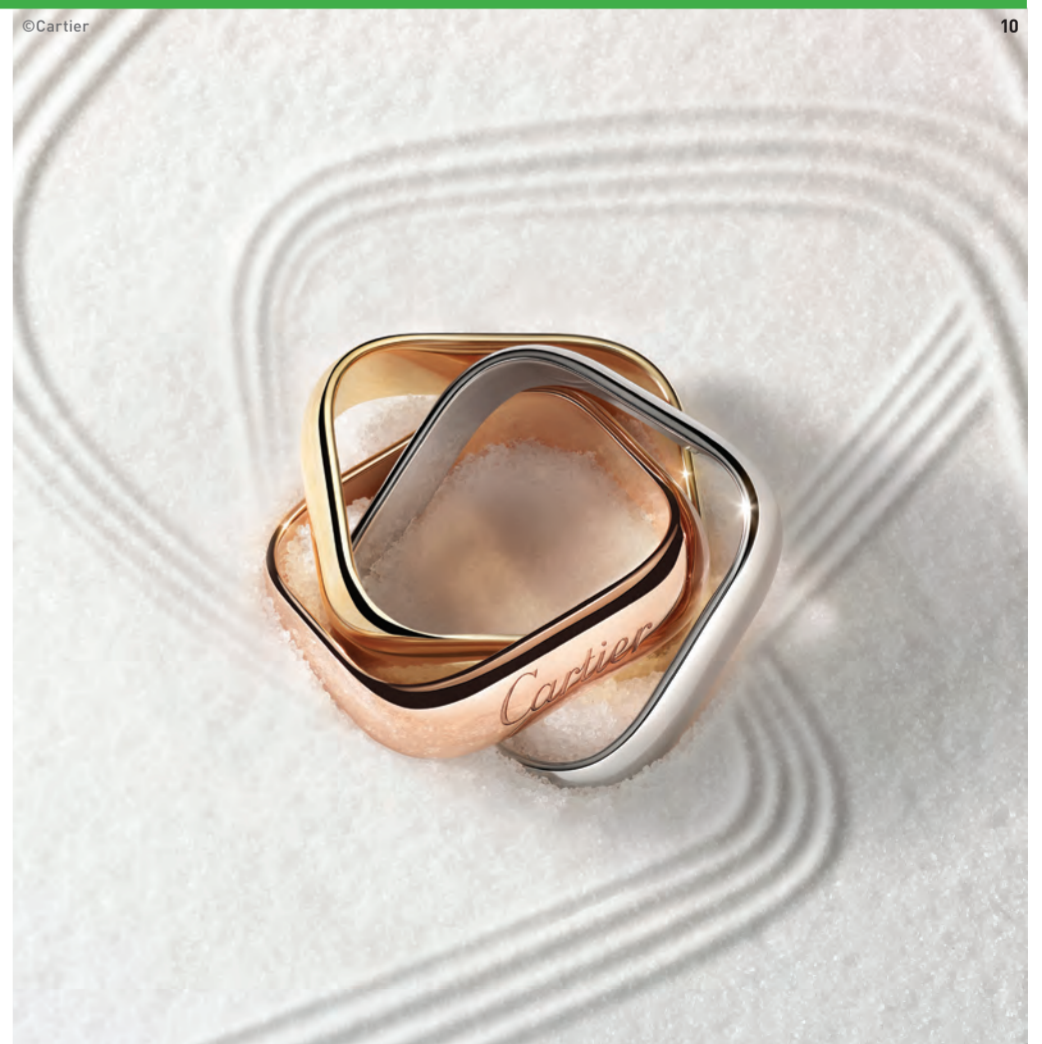
9 4층과 5층을 하나로 연결한 개방감 있는 층고에 쏟아지는 자연광이 돋보이는 라 레지던스. 10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트리니티 주얼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12일간의 문화 축제를 까르띠에 메종 청담에서 진행한다.

5층, La Résidence
라 레지던스라 칭하는 이 공간은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인 보자기를 까르띠에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메종 청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이곳은 마치 보자기에 싸인 듯이 아늑한 무드를 선사하고,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4층과 5층을 하나로 연결한 높은 층고에 쏟아지는 자연광이 개방감을 선사하며, 유연한 곡선을 활용한 메자닌은 분위기와 배경을 조절할 수 있는 크고 긴 테퍼스트리를 골드 컬러로 그라데이션해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건물 외관 파사드의 루버에서 창문, 베일, 그리고 내부 커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 독특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전통적인 보자기를 까르띠에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다. 모임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는 베일로 둘러싸인 라 레지던스의 가운데에 자리하면 마치 보자기에 감싸인 듯한 아늑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공간의 유연성을 건축적 은유로 표현해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 공간에서 까르띠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크리에이터의 도시, 서울을 기반으로 창의적 영감을 주고받는 다양한 아트와 컬처 프로젝트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35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자경



“까르띠에 메종 청담은 크리에이터들의 도시, 서울에 대한 까르띠에만의 헌사이자 화답이다”
by 까르띠에 코리아 김세라 사장

트리니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트리니티 주얼리를 주제로 하는 12일간의 문화 축제
까르띠에가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까르띠에 메종 청담 라 레지던스에서 '르 살롱 드 트리니티'를 진행한다. 트리니티 컬렉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트리니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다양한 토크 세션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르 살롱 드 트리니티'는 파리를 비롯한 유럽에서 소규모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친교를 맺던 살롱 문화에서 영감받아 붙인 이름이다. 영화, 문학, 음악을 비롯한 각 분야 유명 인사와 전문가를 섭외해 트리니티 주얼리를 주제로 감성적, 미적, 학술적 요소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상세 내용 및 참여를 위한 사전 예약은 별도의 예약 사이트(register.cartier.com/event/ko/trinity2024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까르띠에의 트리니티 컬렉션은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소재의 3개 밴드로 이뤄진 디자인으로, 원형부터 쿠션 형태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인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트리니티는 사랑, 신의, 우정의 의미를 담아낸 메종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까르띠에 메종 청담 라 레지던스에서 펼쳐 또 다른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artier 10

Get



GIVENCHY
 펠 카프 스킨 소재로 은은한 광택이 돈다. 각 잡힌 세이프로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을 전하는 인타코나 큐브 미니 백 가격 미정 차방사. 문의 02-546-2790

The



TOD'S
 두께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각 잡히지 않은 럭셔리라는 아이디어를 토즈만의 장인 정신으로 재해석한 디 폴리오 백, 카프 스킨인 록소르 리더 소재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48-8233

List

LOUIS VUITTON
 2024 F/W 시즌의 뉴 백으로 아이코닉한 로고 패턴의 코팅 캔버스에 카우하이드 가죽 소재로 트리밍해 완성한 락킷 BB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새로운 디자인, 소재와 컬러로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뉴 백 셀렉션.

PHOTOGRAPHED BY YI JU HYUK



PRADA
 소프트 그레인 가죽을 사용해 착용했을 때 자연스러운 V 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며 멋스러운 연출을 돕는 에메백 4백30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ETRO
 아이코닉한 페이즐리 자카드 패브릭을 매트 질감으로 코팅 처리해 캔버스를 닮은 이중 레이어로 디자인적 디테일이 훌륭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에트로 에센셜 호보 백 1백30만원 에트로. 문의 02-3479-1810



RALPH LAUREN COLLECTION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새롭게 추가된 모카 색상의 다이 컷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 스피릿 카프 스웨이드 바탕에 웨스턴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 스킨 인타르시아 모티브로 레이저 처리한 보디가 특징인 RL 888 톨 카프 스킨 톨 핸들 백 4백7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BOTTEGA VENETA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트레치오 워빙 기법으로 제작한 숄더백 가죽 소재 칼리메로 씨타 백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테. 문의 02-3438-7682

MIU MIU
 독특한 백 세이프가 빈티지하고 보헤미안적인 무드를 선사하며 빅 사이즈로 활용도를 높인 아방뒤르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에디터 성정민





(오른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2025 비제아 레더 다이어리-원빅블랙/소프트커버 9만원
 뮐스킨, 문의 1588-2301, 레이저 각인한 마이스터스틱 본티지 로고와 고급스러운 블루 레진, 1924, 2024 연도와 함께 숫자 100을 새긴 로돌 코팅 Au 750 골드 남이 조화를 이루는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컬렉션 두에 르그랑 만년필 2백53만원, 잉크 보틀 60ml 3만5천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노트 패드 - 피콕 패턴 1400 sheet 14만7천원 뎀티크, 문의 02-3446-7494, M6 8백73만원 라이카, 문의 070-7510-7822, 대각선 다이아몬드 헤드 기오세 패턴으로 장식한 만년필의 덮개가 우아하고 세련된 무드를 배가하는 라인 D 이터나티 1백90만원 에스. 티. 듀폰, 문의 02-2106-3577, #146 노트인디고 컬러) 10만원, 그린 레커드 골드 코팅 캠의 대비되는 색상과 아르데코 시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특징이며, 1924, 2024 연도와 함께 숫자 100을 새긴 Au 750 골드 남이 톤보이는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컬렉션 두에 클래식 만년필 2백36만원,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테이트 5백52만원, 화이트 컬러의 엠블럼과 수공으로 제작한 Au 750 골드 남이 조화를 이루는 마이스터스틱 149 만년필 1백45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강렬한 컬러감과 펜촉에 정교하게 각인한 예이스 문양이 특징인 듀오폴드 클래식 빅레드 CT 섀티널 만년필 1백40만원 파카, 문의 02-2017-9651, 프랑스 파리 센강의 수면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웨이브 패턴이 감각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레상스 뒤 블루 액셀션 슬립 디렉스 메탈&블루 CT 만년필 1백50만원 워터맨, 문의 02-2017-9654 에디터 윤자경

Perfect Pleasures

재킷에서 근사한 만년필을 꺼내 메모하는 신사의 품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어니스트 클리프

Poetry of Time

반클리프 아펠만의 독보적인 예술적 기교(métiers d'art)로 매혹의 시간을 완성하다.

반클리프 아펠은 메종의 역사에서 창작, 공유, 그리고 계승이 지닌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현해왔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교육 파트너십과 문화를 후원하는 이니셔티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2021년부터 '손에서 손으로(de mains en mains)' 이니셔티브를 실행해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는 젊은 세대와 성인을 상대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주얼리 분야에서 기회를 발굴해 관련 문화를 알리며 새로운 직업을 육성했다. 2023년 반클리프 아펠은 프랑스 예술 역학 전문가 조직(French Center of Excellence for Art Mechanics)을 지원했고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Extraordinary Object) 클락을 제작하는 오토마톤 장인의 노후유 같은 희소성 높은 기술을 보존하려는 특별한 애정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메종은 제네바에 워크숍을 마련해 수많은 장인을 한자리에 모았고,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프레셔스 및 장식용 스톤 마키트리 기법, 조각 및 인그레이빙 기법 등 모든 메종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발전되어온 예술적인 장인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24 워치스 & 원더스(Watches & Wonders)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무수한 감성을 예술적 장인 정신으로 풀어낸 여러 작품을 선



“에나멜 장인만이 정밀한 표현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온도 등 비법을 알고 있다.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손에 의해서만 탄생한 그림은 정확성, 손재주, 진정한 예술적 재능을 필요로 한다”

© Van Cleef & Arpels - JohannSauty



1 3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장식한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 데페 워치. 2 발로네 에나멜 및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으로 완성한 꽃 디테일을 워치에 정교하게 세팅하고 있다.

보였다. 그중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Lady Arpels Brise d'Été) 워치는 메종 창립부터 영감을 선사해온 자연이 지닌 자애로움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여름 아침의 싱그러움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정원에 활짝 피어난 화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를 바탕으로 플리크-아-주르 에나멜 기법으로 나비 모티프를 제작했다. 온디멘드 애니메이션 모듈로 마치 시계에 생명을 불어넣은 듯 나비의 날개와 더불어 꽃과 줄기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동감을 표현했다. 또 발로네 에나멜로 제작한 화관은 스페르타이트 가닛으로 표현한 암술과 어우러져 하늘빛을 머금었다. 다이얼은 무광 머더오브얼이 지닌 강렬함과 대비를 이루고, 고귀한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정적인 장면을 더욱 매혹적으로 드러낸다. 꽃은 샹르베 에나멜을 적용한 일사구로 이루어졌고, 풀잎에는 차보라이트 가닛 및 3D 플리크-아-주르 에나멜을 적용했다. 풀잎에 둘러싸인 꽃은 미니어처 볼륨 페인팅 기법으로 깊은 입체감을 표현한 줄기로 지지되며, 전원 풍경을 그려낸 이 작품은 자연의 영원한 순환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는 포에트리 오브 타임(Poetry of Time)의 비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 에나멜 장인만이 정밀한 표현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온도 등 비법을 알고 있다.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손에 의해서만 탄생한 그림은 정확성, 손재주, 진정한 예술적 재능을 필요로 한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38mm 케이스는 서정적인 무드가 가득한 워치에 심플함을 더해주고, 셀프 와인딩 메커니즘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윤자경

The glory of woman

단순히 기존 남성 시계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대 여성의 소망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블랑팡의 레이디버드 컬렉션. 그리고 오늘날,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에 따라 더욱 발전한 장인의 노하우를 담아 새로운 타임피스를 추가했다.



오로지 여성을 위한

최초의 레이디버드 컬렉션은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와 그녀의 조카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가 블랑팡을 공동으로 이끌던 1956년에 탄생했다. 당시 여성들에게 작은 시계가 인기 있었는데, 초소형 무브먼트를 장착한 오리지널 레이디버드의 개발은 놀라운 위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베티와 장-자크는 오리지널 레이디버드를 그저 작은 소형 시계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계를 선보이겠다는 더욱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결국 두 사람은 위치메이킹 세계에서 지름이 가장 작은 라운드 무브먼트(지름 11.85mm)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또 그 당시 위치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계식 무브먼트가 작아지면 시계가 취약해진다는 의견이 정설로 통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작은 직사각형 무브먼트를 장착한 경쟁사의 여성용 시계는 유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블랑팡의 오리지널 레이디버드는 무브먼트의 기어 트레인에 힘을 하나 더 추가해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고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안정적인 시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

1, 5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릴린 먼로의 블랑팡 워치. 오늘날에는 현대인의 취향을 반영해 재해석한 모델을 선보였다. 2 과거 레이디버드 위치의 광고 중 한 면. 3 여성 최초로 위치메이킹 회사를 이끌었던 베티 피슈테르. 4 초소형 무브먼트를 탑재한 과거의 레이디버드. 6 멀티컬러 인덱스의 레이디버드 컬렉션 위치가 다채롭고 화려한 맛을 전한다. 7 새로운 코랄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레이디버드 컬렉션의 새로운 위치. 8 레온 서벳 옐로우, 라즈베리 핑크, 애플 그린, 미드나잇 블루, 화이트 등 다섯 가지 스트랩 세트를 제공해 기분에 따라 쉽고 빠르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



처럼 레이디버드는 베티 피슈테르의 추진력, 결단력, 비전을 담아 여성을 대표하는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여성을 대표하는 마릴린 먼로의 블랑팡에 대한 사랑도 여성들의 시계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그 후 블랑팡은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 위치를 탄생시키기 위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다. 목표는 단 한 가지였다. 오로지 여성을 위해 디자인한 오리지널 레이디버드처럼, 새로운 모델은 전적으로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블랑팡은 러그 아래쪽을 미세하게 구부려 새로운 케이스가 여성의 손목에 잘 맞도록 고안했고, 실제 지름과 지름 대비 다이얼의 크기, 케이스 두께의 균형을 맞췄다. 다이얼에도 수년간의 시도와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레이디버드 컬러 위치는 다이얼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각 인덱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반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개의 링은 동일한 기하학적 구조를 이뤘다. 독특한 시각적 재미와 매력을 선사한다. 또 다이얼에는 진귀한 머더오브펠을 사용했는데, 반짝이는 화이트 색상은 '엑스트라 화이트(extra white)'라 불리는 최고 등급이며, 그중에서도 껍질 일부분에서만 발견되는 비눗방울이라 불리는 빌 드 사봉(bulles de savons) 등급의 질감을 적용한 미묘한 물결무늬로 다이얼에 시각적인 깊이를 더해 가치를 높였다. 레이디버드를 감상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인덱스 프린팅도 눈여겨 봐야 한다. 다이얼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덱스를 다섯 번 프린팅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적인 잉크 도포 작업 사이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다이얼 제작자의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 마치 막으로 내부에 연결된 다이아몬드 세팅 링을 제작하는 과정도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다. 크기가 서로 다른 다이아몬드 11개를 가느다란 형태에 맞추어야 하며, 스톤 세터는 각 위치마다 적절한 크기의 스톤을 골라 푸수아(poussoir)라는 도구를 사용해 극소량의 오일도 스톤을 하나하나 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이아몬드를 올바른 위치에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링의 곡선을 따라 각 면의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매우 섬세한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 어떤 과정이든 허투루 하지 않는 오늘날의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는 베티 피슈테르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레이디버드의 시대

블랑팡의 레이디버드 컬러 컬렉션에 컬러풀하고 생동감 넘치는 2개의 위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선 햇살 가득한 밝은 하늘을 연상시키는 코랄 블루 톤의 위치는 상쾌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대담하고 강렬한 무드의 멀티컬러 인덱스 버전은 상징적인 블랑팡의 여성용 문패이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다양한 크기와 소재로 완성한 레이디버드 컬러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워터 있는 유머 감각까지 겸비한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로마숫자 형태의 인덱스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크기로 표시되는데, 다이얼 상단부에서 눈에 잘 띄던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눈에 덜 띄도록 디자인했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완벽히 균형 잡힌 미학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색조를 지닌 각 인덱스는 깊이를 더하기 위해 다섯 번이나 색상을 입히는 과정을 거쳤다. 이 미묘한 비대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6시 방향에 여성스러운 모습의 문패이즈를 배치했으며, 엄선된 소재가 선사하는 광채와 깊이, 독특한 대비 덕분에 마치 진주 자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총 5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34.9mm 케이스에 장착한 다이얼은 2개의 원에 수작업으로 세팅한 7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광채와 매혹적인 빛을 발산한다. 크라운과 버클에 장식한 보석은 총 2캐럿 이상의 중량을 자랑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의 가죽 스트랩에는 색다른 매력에 있는 것. 코랄 블루 인덱스의 위치는 동일한 색상의 스트랩을 갖췄으며, 멀티컬러 인덱스를 더한 시계에는 다섯 가지 스트랩 세트(레몬 서벳 옐로우, 라즈베리 핑크, 애플 그린, 미드나잇 블루, 화이트)를 제공한다. 핀 버클 또는 폴딩 버클을 장착한 이 스트랩은 별도의 도구 없이도 쉽고 빠르게 교체



“햇살 가득한 밝은 하늘을 연상시키는 코랄 블루 톤의 모델은 상쾌함과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또 대담하고 강렬한 무드의 멀티컬러 인덱스 버전은 블랑팡의 상징적인 여성용 문패이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칼리버 1163L로 구동하는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는 블랑팡만의 시그니처인 마릴린 먼로에게 영감을 받은 뷰티 마크가 새겨진 문패이즈를 갖추고 있다. 아이코닉한 문패이즈가 한번에 시선을 사로잡고,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페들라주, 베렐링, 코트 드 제네바 등 파인 위치메이킹의 전통에 따라 수작업으로 장식한 이 오토메틱 칼리버는 아주르 세팅 로터를 적용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의 케이스 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479-1833 에디터윤자경



ROYAL

남자를 위한 F/W 스타일의 재해석. 은은하지만 파워풀하게, 화이트 럭셔리 룩의 시간. PHOTOGRAPHED JUNG JIEUN



그레이 컬러의 헤링본 코트 가격 미정,
그린 컬러의 크루넥 울 스웨터
2백70만원, 버건디 컬러의 임브로이더리
하이넥 울 스웨터 1백70만원, 그레이
컬러 울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발렌티노.
스튜디오 장식의 카프 스킨 로퍼 1백7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페이지 왼쪽부터 차례대로)
울 캐시미어 카디건 가격 미정, 이너로
입은 롱 슬리브 티셔츠 59만원, 버건디
컬러의 포켓 디테일 쇼츠 가격 미정
모두 페라기모, 블랙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버건디 컬러의
캐시미어 카디건 3백83만원, 레드 컬러
카디건 가격 미정, 네이비 컬러의 팬츠
가격 미정 모두 자방시, 블랙 컬러 부츠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버건디 컬러의 울
배라시아 소재의 재킷, 팬츠, 옅은 블루
컬러의 테일러드 셔츠, 스터드 및 홀스빗
디테일의 블랙 레더 슈즈 모두 가격
미정 구찌, 레드 컬러의 레더 재킷 가격
미정, 브라운 컬러의 블루중 가격 미정,
이너로 입은 롱 슬리브 티셔츠 59만원,
브라운 컬러의 쇼츠 가격 미정, 버건디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모두 페라기모.



(왼쪽) 레드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 카디건,
스카이 블루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 톱,
화이트 레더 벨트 장식의 그레이 컬러
울 소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오른쪽) 세브론 패턴의 그레이 컬러
울 재킷, 핑크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
톱, 울 소재의 네이비 컬러 후디드
니트 톱, 옐로 레더 벨트 장식의
그레이 컬러 세브론 패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왼쪽) 브라운 컬러의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 더블 코트, 캐시미어 소프라
비쓰 울 터틀넥, 캐시미어 플란넬
소재 팬츠, 브라운 컬러 카프 스킨
로퍼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오른쪽) 울 소재의 그레이 컬러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팬츠,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크루넥 스웨터, 화이트
컬러의 코튼 셔츠,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왼쪽부터 차례대로)
 임브로이디드 카우보이 재킷
 4백59만원, 셔츠 3백23만원,
 테일러드 카펜터 팬츠 2백55만원,
 버클 장식의 블랙 컬러 슈츠
 가격 미정 모두 루이 비통.
 퍼플 그레이 컬러의 아가일 패턴
 니트 베스트, 블랙 컬러의 캐시미어
 소재 팬츠, 블랙 컬러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그린 컬러의
 헤링본 코트, 알파카 캐시미어
 소재 카디건, 그레이 컬러의 커프
 스킨 소재 팬츠, 레이스업 슈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그레이 컬러의 퍼 코트, 다크 그레이
 컬러의 울 배라시아 소재 팬츠,
 스타드 및 홀스빗 디테일의 블랙
 레더 슈츠, 네이비 컬러 실크 넥 보,
 실버 플라툰 피니시 마리나 체인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구찌.

레오파드 프린트 퍼 코트 가격 미정,
 세틴 가운 4백15만원,
 팬츠 2백48만원, 블랙 컬러 부츠
 1백40만원 모두 돌체앤가바나.



(왼쪽) 더블 콤팩트 코트 프리제 코트
 6백49만원, 화이트 컬러 터틀넥 가격
 미정, 코트 프리제 팬츠 2백만원, 블랙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모두 보테가 베네타.
 (오른쪽) 본디드 레더 트렌치코트
 1천6백8만원, 그레이 컬러 니트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레더 셔츠 가격 미정,
 블랙 컬러 울 소재 팬츠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모두 보테가 베네타.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김명희(Freelancer),
 김현준(J Model),
 이정준(J Model),
 Shao Minghao(J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고급 깃털 충전재로 패딩 처리해 환절기 야외 활동 시 보온성을 제공하는 마리나 다운 베스트. 지퍼 디테일 핸드 포켓과 큼직한 아웃 포켓을 갖춰 활동성을 보장한다. 1백43만원 **스톤 아일랜드**. 문의 02-516-2778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한 카무플라주 프린트가 모던한 제롬 카모 재킷. 멤브레인을 적용한 발수 및 방수성 3레이어 스트레치 자카드 원단을 사용했다. 핏을 돋보이게 하는 엘라스틱 허리 밴드, 4개의 아웃 포켓과 2개의 이너 포켓을 더했다. 1백15만원 **퓨잡**. 문의 02-542-1546

브랜드 시그니처인 아틱 디스크 로고 라벨로 장식한 화이트 컬러 코어 어드저스터블 캡 38만원, 향상된 발목 지지 기능은 물론 거친 지형에서 탁월한 그림감을 위해 디자인한 고성능 트레드 밑창을 갖춘 저니 부츠 라이트 1백10만원 모두 **캐나다구스**.

문의 02-3213-2336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방수 신발 제조업체인 보그스(BOGS)와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하이톱 레이스업 부츠. 내오프렌 및 러버 소재로 100% 방수 가능하며 펠카나이즈드 솔을 장착했다. 측면에는 입체적인 레터링 로고를, 뒷면에는 4G 엠블럼을 더해 감각적이다. 1백20만원대 **지팡시**. 문의 02-3479-6137

산에서 비롯된 브랜드 DNA를 반영한 디자인의 트레일그립 스니커즈. 러닝, 트레킹, 등산 등 모든 지형에서의 야외 활동 중 발을 보호하고 편안함,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방수 및 통기성이 뛰어난 고퍼텍스 소재를 적용했다.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문의 0030-8321-0794 여러 개의 아웃 포켓 디테일과 탈착 가능한 파우치로 뛰어난 수납력을 자랑하는 카키 컬러 빅스 백팩. 길이 조절 가능한 메시 백 스트랩 및 체스트 벨트, 측면 버클 스트랩, 듀피의 스마트 슬리브 등으로 기능성을 강화했다. 20만9천원 **샘스나이트 레드**.

문의 02-2007-2943 TPU 필름 코팅 처리한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림스톱 소재로 이루어져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블랙 홀 더플 40L 백. 패드가 들어 있는 탈착식 슬리브 스트랩으로 백팩처럼 연출 가능하며, 견고한 외부 데이지 체인으로 추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다. 23만9천원 **파타고니아**. 문의 1544-1876

객원 에디터 **이혜미**



Adventure Ready

기능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한 남성 아웃도어 룩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riginals for Life

여행의 동반자 같은 럭셔리 모빌리티 브랜드 리모와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스타일리시한 뉴 백 컬렉션, '오리지널 백'을 선보인다.

긴 여정의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는 하이엔드 모빌리티 브랜드 리모와. 정확하고 세심한 디자인과 제작 노하우가 특징인 독일 브랜드답게 높은 퀄리티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메종 리모와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브랜드 유산을 세심하게 이어받은 오리지널 백(Original Bag)을 선보이며 라인을 다각화한다. 이 핸드백은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젠더리스한 감성이 돋보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리모와의 아이코닉한 슈트케이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리모와 오리지널 백의 타임리스한 디자인은 단순한 실용성의 차원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

“
이번 오리지널 백
출시는 리모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by 리모와 CEO
위그 보네-마장베르(Hugues
Bonnet-Masimbert)

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덕분에 절제된 세련미를 통해 캐주얼한 모임부터 갖춰 입어야 하는 포멀한 행사까지 모든 상황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독일 생산 완제품으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높은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시크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모서리를 둥글게 마무리한 라운드 셰이프의 프레임은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 정신을 계승하며 가죽 트림링 핸들이 우아함을 더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 수월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한다. 길이 조절과 탈착 가능한 웨빙 스트랩으로 여행과 일상 어디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톱 핸들 토트백부터 크로스 보디, 숄더백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리모와가 최초로 고안한 혁신적인 버튼 장치 역시 백을 한층 손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마무리한 핸드백 내부는 필요한 소지품을 모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 슬롯과 지퍼 포켓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리모와는 이 오리지널 백 출시를 기념해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영화감독 조던 헤밍웨이(Jordan Hemingway)가 연출한 캠페인 영상과 패션 사진작가 루이즈 & 마리아 손펠트(Louise & Maria Thornfeldt) 듀오가 촬영한 캠페인 스틸을 통해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도심을 배경으로 최고의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감각적으로 조명한다. 세계적인 슈퍼모델 리우웬(Liu Wen), 래퍼 센트럴 씨(Central Cee), 저널리스트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브라힘 카마라(IB Kamara), 포토그래퍼 라리사 호프만(Larissa Hofmann) 등 4명의 글로벌 인사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미국 록 밴드 스트로크스(The Strokes)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te)'를 배경으로 리모와 오리지널 백과 함께 펼쳐지는 도시에서의 24시간 여정을 그려낸다. 리모와의 CEO 위그 보네-마장베르(Hugues Bonnet-Masimbert)는 “이번 오리지널 백 출시를 리모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제품이 다양한 사람들의 여정에 항상 함께할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전을 실현하기까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도 있었지만, 리모와가 그동안 일군 철저한 장인 정신과 틀을 뛰어넘는 혁신으로 이뤄낸 이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리모와 오리지널 백은 2024년 9월 12일부터 리모와 매장과 공식 온라인 몰(RIMOWA.com)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에디터 **성정민**





Ever Evolving Beauty

1백50여 년간 쌓은 피부 과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와 함께한 아름다운 여정.

지난 9월 2일 교토에서 시세이도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 중 하나인 퓨처 솔루션 LX 컬렉션의 리 론칭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프레스와 인플루 언서가 교토에 모였다. 퓨처 솔루션 LX는 원칙과 정도를 고집하면서 긴 세월 제품 개발에 매진해온 시세이도 초대 사장 후쿠하라 신조가 남긴 '제품으로 모든 것을 말하라'라는 말처럼 시세이도가 추구하는 품질, 패키지 등 제품 그 자체의 힘을 담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제품 하나에 시세이 도의 혁신적인 1백50여 년 피부 과학과 일본 전통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은 것이다.

150여 년 피부 과학으로 빛은 진화하는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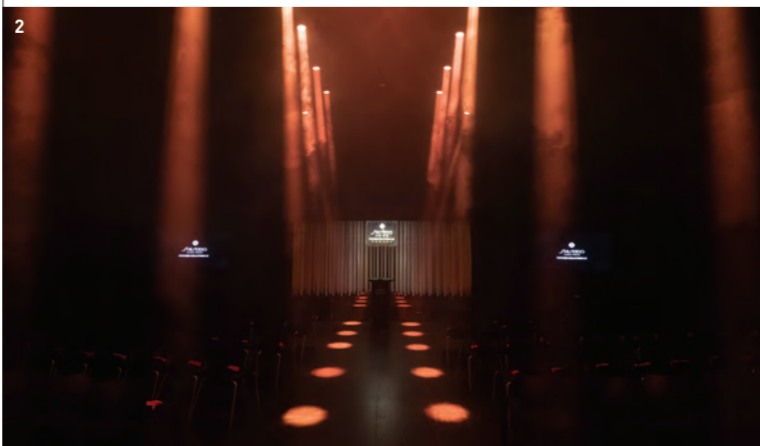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 퓨처 솔루션 LX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1백50여 년 동안 이어온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시세이도의 피부 과학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퓨처 솔루션 LX의 진 라 인에는 주요 성분인 *엔메이 허브를 바탕으로 시세이도의 독점 기술인 롱제네비티 테크놀로지™ (LonGenevity Technology™)가 적용되어 있다. 연명초라고도 불리는 *엔메이 허브는 퓨처 솔루션 LX 스킨케어의 핵심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피부에 건강한 탄력과 빛나는 광채를 선사한다. 롱제네비티 테크놀로지™에는 1백50여 년 동안 피부만 연구한 시세이도의 오랜 노하우가 담겨 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특별한 과학이 녹아 있는 것. 이렇듯 *엔메이 허브가 지닌 능력과 롱제네비티 테크놀로지™가 결합해 탄력과 광도를 향상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 휘해 피부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퓨처 솔루션 LX는 총 여섯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 다.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퓨처 솔루션 LX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엑스트라 리치 클렌징 폼 에스 를 시작으로 피붓결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컨센트레이티드 브라이트닝 소프너, 피부 깊숙한 곳에 서부터 탄력과 광채를 끌어올려주는 고농축 렉서리 세럼인 인텐시브 피밍 브릴리언스 세럼, 외부 환 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탄력과 광채를 선사하는 렉서리 데이 크림인 토탈 프로텍티브 크림 에스, 또렷한 눈매를 위한 아이 앤 립 컨투어 리제너레이팅 크림 에스까지. 그중 가장 핵심 제품인 토탈 리 제너레이팅 크림 에스는 풍성하고 쫄쫄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감싸며 밤사이 피부 컨디션 케어를 돕 고 탄력과 광채를 끌어올려 다음 날 고급스럽게 반짝이며 생기 넘치는 피부를 선사한다.

*엔메이(Enmei) 허브 밭아풀 잎·줄기 추출물

“**퓨처 솔루션 LX 컬렉션은 시세이도가 추구하는 품질, 패키지 등 제품 그 자체의 힘을 담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이루는 미학

시세이도는 퓨처 솔루션 LX 제품의 패키지에 전통과 현대가 만나 이루는 미학을 표현하고 자 했다. 이를 위해 토탈 리제너레이팅 크림 에 스에 일본의 유서 깊은 니시진 직물(Nishijin textile) 조각을 담았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 니 시진 직물을 연구하고 만들어진 브랜드 '호수 (HOSOO)'는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를 위해 직접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직물을 제공했다. 은과 금으로 만든 텍스타일과 천을 엮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직물을 창조하는 니시진 전통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속되는 고급스러움의 상 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개 념을 완벽히 보여준다. 교토 호수 뮤지엄에서는 야기하쿠 공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며 니시 진에 깃든 장인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위한 끝없는 여정

시세이도는 퓨처 솔루션 LX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 적 기술을 결합해 얻어낸 프레스티지와 장인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한 많은 준비는 우리를 감동시켰다. 먼저 진화하 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관문, '카지미야 문 (Kajimiya Gate)'을 지나 입장해야 하는 호텔 더 미쓰이 교토(Hotel the Mitsui Kyoto)가 그 첫 번째 상징적 공간이다. 카지미야 문은 3백 년 이 상의 역사를 지닌 문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 롭게 공존하며 변화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을 구현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통적 사원인 료소쿠인에서의 명상을 즐기고 난 후 녹차를 마 시는 시간에는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 의미를 가꿀 수 있었다. 시간의 교향곡이라 불 리는 오랜 소와카(SOWAKA) 료칸에서는 기온 로카(Gion Loka)가 큐레이션한 감각적인 다이 닝과 함께 퓨처 솔루션 LX를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가 이어졌다. 이 다이닝에서 선보인 발효 식 품과 된장을 사용한 요리들로 우아한 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또 체험 프 로그램 중 하나인 유타카 페이스 트리트먼트를 통해 퓨처 솔루션 LX의 효능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도록 했다. 이 트리트먼트도 약 1백20년에 달하는 역사를 지닌 전통 목조건물인 마치야에 서 진행해 오랜 전통이 이어져 현대와 만나는 것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 시세이도 가 추구하는 진화하는 아름다움의 여정에 완전 히 동화된 시간이었다. 문의 080-564-7700

1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진 라인. 2 교토 료미아테(Rohm Theatre Kyoto)에서 진행된 퓨처 솔루션 LX 프레젠테이션 현장. 피부 광채를 뜻하는 빛의 동료로 많은 이들을 맞이했다. 3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관문인 호텔 더 미쓰이 교토의 카지미야 문. 4 퓨처 솔루션 LX 토탈 리제너레이팅 크림 에스의 패키지를 완성한 호수의 니시진 직물을 전시한 모습. 5 소와카 료칸에서 진행된 기온 로카 다이닝. 6 발효식품과 된장을 사용한 기온 로카 다이닝의 플레이트. 7 전통 사원 료소쿠인에서 이뤄진 명상 시간. 8 오랜 전통이 깃든 소와카 료칸에 전시된 퓨처 솔루션 LX 토탈 리제너레이팅 크림 에스. 9 일본 전통 그린티로 제작된 케이터링 초콜릿. 료소쿠인 사원에서 명상을 진행한 후 제공했다.



Interview

시세이도 전문가 3인에게 시세이도와 퓨처 솔루션 LX의 철학과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Stylechosun(이하 S)** 시세이도는 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주목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렉서리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는 시세이도라는 회사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세이도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경외(revere all living things in the world)'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퓨처 솔루션 LX의 콘셉트는 자연과 예술, 문화의 장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연을 존중 하고, 자연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부 또한 자연스럽게 아 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S 퓨처 솔루션 LX의 핵심 성분, *엔메이 허브를 발견하게 된 히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시세이도의 식물 연구는 약 1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식물을 찾아서 연구하 다 *엔메이 허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한 쉼터 길에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엔메이 허브 로 치료했고, *엔메이 허브에 비밀스러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연구한 결과 실제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퓨처 솔루션 LX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 퓨처 솔루션 LX 컬렉션을 사용하면 좋을 연령대나 피부 고민 유형에 대해 알려주시고, 이 컬렉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연령대와 피부 타입을 특정하지 않아 누구나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수록 더 빠르게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시세이도 같은 좋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피부에 대한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세이도와 같이 1백 년이 넘는 브랜드 는 피부에 대한 오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라도 대비 가능하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능과 효과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떤 피부에나 효과적으 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하기 때문에 제품력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S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팁이 있다면요?

자마다 자신의 타입이 있겠지만 짧은 기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효과나 효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바꿀 때 전 체 라인을 한번에 바꾸는 것보다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토탈 리제너레이팅 크림 에스 같은 제품 라인의 대표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디터 성정민**

인터뷰어 안도 마나코(Ms. Mirako Ando) - 시세이도 브랜드 연구 개발 그룹 이사(Director of Brand SHISEIDO'S R&D Group) 미야이 마사시(Masashi Miyai) - 시세이도 미라이 기술 연구소(Shiseido MIRAI Technology Institute) 연구원 츠가와 마유코(Ms. Mayuko Tsugawa) - 시세이도 제품 개발 매니저(Product Development Manager)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르 라보 비어드 오일** 해바라기 오일, 포도 씨 오일,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수업을 부드럽게 관리한다. 베르가모트와 라벤더 향에 시원한 바이올렛과 통가 빈을 더해 향기로운 그루밍을 즐길 수 있다. 9만원. 문의 1544-1345 **랩 시리즈 데일리 레스큐 워터 로션** 마무리감이 산뜻한 보습 토너로, 수분, 자석 기술인 '하이드라5G'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바르는 즉시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 에너지를 충전한다. 200ml 6만2천원. 문의 1644-3784 **트루핏앤티 에드워드인 컬렉션** 세이빙 중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면도기와 최상급 슈퍼 배저(super badger) 오소리 털 소재의

세이빙 브러시로 구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1-1805 **에르메스 매트 데르메스 애프터 셰이브 밤** 부드러운 가벼운 포물러로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면도 후 따끔거리는 느낌을 진정시키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100ml 11만3천원. 문의 02-310-5174 **오피신 유니버설 볼리 크림 포고노토미엔** 세이빙 크림 아몬드 오일과 플로럴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에 보습감을 부여하고, 히노키 나무 숲 향기가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텍스처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다. 75g 4만9천원. 문의 031-688-5551 **에이피 뷰티 리프트 앤 펌 듀얼 아이 트리트먼트** 피부 특수 케어 원리를 활용해 개발한 아이 존 특화 성분을 담아 눈가 피부에

중요한 심층 탄력을 강화하고 리프팅을 도와준다. 15ml 가격 미정. 문의 080-023-5454 **시세이도 맨 스킨 임파워링 크림 N** 남성 피부의 노화 징후를 한번에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영지버섯 줄기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준다. 50ml 12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샤넬 보이 드 사벨 안티 라인 로션** 자연 유래 초미세 파우더와 아나토 추출물이 조화를 이루어 지성 피부 타입에 제격이다. 피부를 매트하게 정돈해 번들거림을 잡아주며,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준다. 또 히알루론산과 식물성 글리세린을 함유해 편안한 수분감을 제공한다. 100ml 9만7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윤자경**



Grooming Ritual

빈틈 없는 그남자의 뷰티 스케줄.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에르메스 매트 데르메스 애프터 셰이브 밤

에르메스 매트 데르메스 애프터 셰이브 밤

Into the Scent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남자의 향기.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루이 비통 LV 러버스** 퍼플 컬러의 액션과 자크 카발리에-벨트리의 협업으로 탄생한 향수. 강렬하고 우디한 시더우드로 향에 깊이를 더하고, 깨끗하고 산뜻한 진자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갈바눔이 선명한 노트를 발산한다. 100ml 47만원. 문의 02-3432-1854 **디티크 루나 마리 오 드 퍼퓸** 앵버리 향의 부드러운 핑크 페퍼의 스파이시 액센트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향이다. 인센스의 노트를 배가하고, 광물의 신선함을 연상시키는 미묘한 향을 선사한다. 100ml 47만4천원. 문의 02-3446-7494 **바이레드 데저트 던 오 드 퍼퓸** 키다림과 장미 꽃잎의 달콤한 향을 시작으로 사막의 건조한 열기를 떠올리게 하는 우디 노트가 이어진다.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는 샌들우드와 시더우드가 약간의 흙 내음으로 중심을 잡아 매력적인 향을 발산한다. 100ml 39만원. 문의 1533-7305 **지방시 젠틀맨 오 드 퍼퓸** 인텐스 블루

아이리스에 바질의 아로마틱한 향을 더해 남성적이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배가한다. 생동감 넘치는 카다멈과 사이프러스의 세련된 노트로 섬세한 향을 느껴볼 수 있다. 100ml 17만9천원. 문의 080-801-9500 **이솝 비레레 오 드 퍼퓸** 그린 아로마로 시작해 스파클링한 베르가모트로 이어지며 생기를 더한다. 하트 노트는 그린 티, 매스틱, 생기 넘치는 핑크 페퍼로 이루어진 진하고 따뜻한 허브 향이 특징이다. 이어 시더, 그린 마테, 헤이의 아로마로 전개되고, 미네랄 향이 가미된 우디한 베이스로 식물의 아로마가 풍부하게 느껴진다. 50ml 17만원. 문의 1800-1987 **프레데릭 말 데저트 켈** : 흙 인센스와 베터베르가 아우라진 스모키한 레더 노트가 경쾌한 무드를 선사하며, 스파이시한 핑크 페퍼, 흑백나무, 향나무와 만나 오우드의 매력을 배가해 독보적이고 고급스러운 향을 발산한다. 50ml 92만원. 문의 02-790-0577 에디터 **윤자경**



에르메스 매트 데르메스 애프터 셰이브 밤

에르메스 매트 데르메스 애프터 셰이브 밤

Editor's Pick

바쁜 일상에서도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지키고 싶다면, 이달의 뷰티템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넬 트럼페 영 르루주 마드 루주 꾸뛰리예르 올 가을 레드 립을 고르라면 바로 이 제품. 너무 매트하거나 글로시하지 않아야 어떤 피부 톤이든 소화할 수 있다. 일단 컬러가 매우 고급스러운 것은 물론 특별한 매트 피니시 포물러를 적용해 보송하면서도 부드러운 사용감을 선사한다. 컬러가 금세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장점. 3.3g 20만4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인텐시브 피밍 브릴리언스 세럼 연명초라 불리는 진귀한 엔메이 허브와 1백50년 전통의 롱제네비타 콤플렉스™가 만나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전달하고 탄력과 광채를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톤으로 가꿔준다. 10일 정도 사용 중인데 은은한 광채가 도나 피부가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 50ml 43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성정민

디올 뷰티 플랑 드 파리 리미티드 에디션 루즈 블러쉬 #388 트리오프 요즘 자주 손이 가는 데일리 뷰티템 중 하나. 블러셔 위에 새겨진 파리의 에투알 광장과 개선문은 인길을 사로잡는다. 보기보다 여러여러한 핑크 컬러로 화사한 피부 톤을 연출해 주며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파우더리한 텍스처로 여러 번 덧발라도 묻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색되어서 좋았다. 5.7g 7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템버린즈 퍼프 이브닝글로우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창의적인 퍼포먼스로 사랑받는 템버린즈의 신제품은 늘 기대된다. 이번 제품 역시 핑크 컬러의 오묘한 패키지부터 실망시키지 않았다. 향도 패키지에 구현된 컬러처럼 도시를 물들이는 해질녘 노을 빛을 담았다고 한다. 장미와 라즈베리, 머스크 향이 과하지 않고 조화롭게 섞여 고급스러운 향을 발산한다. 50ml 14만9천원. 문의 1644-1246 _by 에디터 성정민

센дук 풋 풋 크림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을 위한 풋 크림. 우레아 성분이 거칠고 갈라진 발과 굳은 각질을 잠재우고 진한 보습력과 바오바브나무 씨 오일, 부활초 추출물이 윤기와 영양을 더해준다. 자기 전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은 촉촉하고 같은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발이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이다. 또 피부 자극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 자극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0ml 2만2천원대. 문의 1566-2506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맥 스튜디오 래디언스 24아워 루미너스 리프트 컨실러 #NC 14.5 맥의 아이코닉한 스튜디오 래디언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 다크서클, 잡티 등 피부 결점을 24시간 동안 뭉침 없이 균일하게 보정하고 결점 없는 매끈한 피부로 연출해 주며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 있어 파운데이션 대신 사용하기도 좋았다. 11ml 4만9천원대. 문의 1644-374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지방시 뷰티 르 스왕 느와 세럼 이오 강인한 자생력을 지닌 해양 활성 성분을 담은 집중 아이 케어 아이템으로, 꾸준히 사용했다니 눈가가 탄력 있게 개선된 듯하다. 무엇보다 감각적인 무지갯빛 텍스처가 바르는 순간 즉각적인 타이팅 효과를 선사하고, 효요적으로 만든 회전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쿨링 효과와 더불어 마사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15ml 31만4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윤자경

킬리안 울드패션드 킬리안 헤네시가 18년산 스코틀랜드 전통 싱글몰트 위스키 향에서 영감을 얻은 향수. 고농축 시더우드 에센스, 에버라스트 엠솔루트에 포함함나무 성분을 더해 스모키하면서 중성적인 향으로 가을에 사용하기 좋다. 50ml 35만원대. 문의 02-514-5167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크리드 포셀린 캔들 바니시아 몽환적인 바닐라 향으로 집 안에 향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달콤하고 크리미한 바닐라 향이 은은한 우디 향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더한다. 또 아이코닉한 앙각 패턴의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배가한다. 220g 18만원. 문의 02-3449-5312 _by 에디터 윤자경

아베다 리미티드 핸드 릴리프™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워드 체리 아몬드 아로마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이해 출시했으며 보습에 효과적인 안디로바 오일이 들어 있어 하루 종일 촉촉하고, 은은한 체리 아몬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 부쩍 건조해진 날씨에 수시로 바르기 좋다. 또 수억급 일부를 유방암 연구 재단에 기부해 의미까지 더한 착한 핸드크림. 100ml 3만2천원대.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신정임

아워글래스 엠버넌트 라이팅 팔레트 언락드 컬렉션 드래곤 에디션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용을 모티브로 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하이라이트, 아이샤드 & 브러셔, 블러셔 등 다섯 가지 신제품과 피니시 파우더로 구성해 팔레트 하나로 분위기가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8.4g 14만4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아르마니 뷰티 파워 패브리크 루즈 2호 알고 가볍게 피부에 밀착되어 속 땀김 없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유지되는 쿠션이다. 에어로겔을 포함해 번들거림을 없애고, 마치 파우더 처리를 한 듯 매끈한 피부를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넛 메쉬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한 번의 터치로 적당한 포물러를 덜어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다. 14g 케이스 4만1천원, 리필 6만9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윤자경

* 상단(오른쪽)에: 민강현, 윤자경(오른쪽), 복현정, 김보민(아래) 차례대로



1 블랑팡 빌레레 컬렉션 블랑팡에서 스위스 빌레드 주 지역 전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빌레레 컬렉션을 공개했다. 더블 스텝 케이스의 18K 레드 골드와 그린 선레이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빌레레 울트라 슬림, 빌레레 우먼 데이트 문페이즈,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38-1833

2 바이레도 데저트 던 오드 퍼퓸 출시 바이레도에서 고풍한 사막의 새벽을 담은 '데저트 던 오드 퍼퓸'을 출시했다. 사막의 건조한 열기가 떠오르는 샌들우드를 시작으로 시더우드에 깔금하고 상쾌한 향의 파피루스, 스모키한 베티베라가 조화를 이루며 매력적인 잔향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 문의 02-3479-1688

3 에피피 뷰티 2024 레드닷 어워드 수상 에피피뷰티가 프라이빗 라이버 라인으로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빗 라이버 라인의 대표 제품 프라이빗 리저브 리트리니티 세럼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228K™를 농축해 '리퀴드 다이아몬드'라는 포물러에 담았으며, 이를 향상화한 캡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문의 080-023-5454

4 셀린느 브랜드 첫 코즈메틱 라인 '셀린느 보떼'의 신제품 론칭 에디 슬리언이 지난 2023년 만든 셀린느 보떼에서 신제품 '르 루즈 셀린느'를 선보일 예정이다. 골드 케이스에 모노그램 각인 포인트를 더한 것이 특징인 르 루즈 셀린느 립스틱 컬렉션은 새틴 피니시 컬러 15가지로 출시된다. 2024년 가을 15가지 컬러 중 하나인 루즈 트리오프 컬러로 셀린느 뷰티 리추얼의 서막을 연다. 문의 1577-8841

5 에르메스 르 몽드 에르메스 키오스크 에르메스가 9월 6일과 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르 몽드 에르메스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에르메스의 2024년 테마인 포부르의 정신을 담은 이번 행사는 특별한 팝업 공간과 함께 에르메스 페가수스 오리гами의 디자인을 종이접기로 구현하거나 퀴즈 게임에 참가하면 책갈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의 02-542-6622

6 타사키 창립 70주년 기념 'FLOATING SHELL' 팝업 일본의 파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FLOATING SHELL' 팝업을 9월 19일

부터 29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팝업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진주빛 컬러의 조각상과 프레임으로 공간을 구성했으며, 일본의 대표 만화가 후지모토 다쓰키의 작품과 컬래버레이션해 탄생한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문의 02-3461-5558

7 그라프 브라이얼 캠페인 공개 그라프가 낭만적인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러브 스토리를 담은 브라이얼 캠페인을 공개했다. 프리프즈부터 그라프 파리 살롱 근처에서의 행복한 순간까지 담은 6가지 장면을 통해 다이아몬드 인게이지먼트 링, 브라이얼 주얼리,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등 다채로운 그라프 컬렉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8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리프티드파인 래디언스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시세이도가 피부 탄력 저하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바이탈 퍼펙션 리프티드파인 래디언스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세럼을 제안한다. LiftDynamic 4D 기술을 적용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리프팅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9 아르마니 뷰티 프리즈와 글래스 립글로스 아르마니 뷰티가 오일 인 글로스 기술로 완성한 프리즈 마 글래스 립글로스를 선보였다. 15%의 스킵렌을 함유해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 클리어 샤인, 캔디 헤일요, 허니 글림 등 7가지 컬러로 선보여 단독으로 바르거나 다른 컬러와 레이어링해 다채로운 립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022-3332

10 티파니 타이탄 바이 버렐 윌리엄스 담수 진주 컬렉션 공개 1백87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티파니가 프로듀서, 가수 겸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퍼렐 윌리엄스와 함께 완성한 티파니





louisvuitton.com

LOUIS VUITTON